

##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시 Free Connective Tissue를 이용한 연조직 처치

김태우\*, 이재관, 엄홍식, 장범석  
강릉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

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는 많은 연구를 통해 높은 성공률이 보고되고 있다. 그러나 외상에 의한 협측 피질골의 파절과 얇은 피질골의 흡수에 의한 치조골 및 변연 치은의 높이와 폭경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.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골유도 재생술식과 연조직 이식을 병행하는 것이 추천된다.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는 수술 횟수가 적어 치료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발치 후 치조계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 그러나 골 유도 재생술식 시행시 차폐막이 노출된 가능성과 감염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 깊은 연조직 처치가 요구된다. 발치 후 피개에 부족한 연조직을 충당하기 위해 결합 조직 이식, 유리 치은 이식 그리고 *rotated palatal flap* 등의 다양한 술식이 이용된다. 이번 발표에서는 상악 전치부의 즉시 식립 임플란트와 상악 구개에서 채취한 유리 결합조직의 이식을 통해 골 이식재 및 차폐막의 완전한 피개를 시도하였다. 결합조직이식을 동반한 발치 후 즉시 식립 임플란트의 연조직 치유양상과 성공적인 피개와 실패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.